

**항공시장 개방,
韓美 통상현안 부각**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해 항공 운송자유화협정(오픈스카이협정) 체결을 강력하게 요구, 항공시장 개방문제가 한미간의 주요 통상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23일 걸척미 교통부 항공담당 부차관보와 국무부 교통담당 부차관보 등 미국 항공관계 고위관계자들의 방문을 받고 항공운송자유화협정에 대한 협의를 벌였다고 밝혔다.

미국측은 이날 면담에서 동 협정이 한국측에 유리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기존 한미항공협정을 대체, 조속한 시일내에 양국간 협정체결을 희망했다.

미국은 동 협정이 ▲항공운임의 완전한 자유경쟁 ▲출발지 이전, 출발, 중간도착, 이원제지점간 노선구조선택의 자유화 ▲운항기종 운항횟수제한 철폐 ▲전세편 운항시 중간기착 허용 등을 설명했다.

우리측은 이에 대해 현재 한미 협정상 미국은 무제한 이원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비해 우리측은 중·남미 2개 지점과 유럽 1개 지점에만 행사할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주지시키면서 한미간에 자유협정이 합의되더라도 제3

국과 합의해야 항공운송자유화가 실현될 수 있다며 점진적인 추진을 주장했다.

**아시아나, 한국-호주노선
공동운항**

아시아나항공은 11월 16일부터 호주의 콰타스항공과 한국-호주노선 공동운항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은 주2회(목, 일요일) 운항하는 서울-시드니노선의 경우 주3회(화, 금, 토요일) 운항하는 콰타스측 비행편 좌석일부를 매입, 아시아나 이름으로 항공권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EC, 항공 규제완화지속,
개선의 여지남겨**

European Committion(EC)는 지난 24일 '87년에 시작된 유럽연합(EU)의 단계적 항공 규제완화는 요금을 낮추고 새로운 노선을 개척하였으나, 요금의 추가 인하와 같은 면에서는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EC는 EU가 오랫동안 계속돼 온 항공사들간의 독점계약을 없애버리기 시작한 이후, 요금이 눈에 띄게 인하된 것은 사실이나 모든 노선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EU의 교통 위원회 장관 네일 키녹은 몇몇 요금은 매우 비싸며 EU 15개 회원국에서의 기본 비행 요금도 마찬가지로 말했다. 그는 과도한 요금을 낮추지 않는다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U는 '87년에 점진적인 항공 규제완화를 단행하면서 그 당시 미국 산업계에 대한 엄청난 규제완화로 인하여 빚어진 시장 혼란과 파산을 피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EU의 최종 단계의 규제완화는 내년 4월에 시작될 것이다.

**US Air, BA사와의
코드쉐어 중단**

미국의 US Air사는 브리티시 에어웨이즈(BA)사가 아메리칸 에어라인즈와 제휴하기로 알려짐에 따라 BA사와의 코드쉐어(code-share) 및 빈번한 항공기 운항 프로그램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결정은 지난 24일 발표되었으며 내년 3월 29일부터 효력을 발휘할 것이나 바로 고객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동사는 BA사가 아메리칸 에어라인즈사와 새로운 더 큰 규모의 합자를 하고자 하는데 당황하였으며 BA사와 함께 아메리칸

에어라인즈사를 연방법원에 고소하였다.

BA와 아메리칸사는 지난 6월 두 회사의 대서양 항로에 대한 운항과 지분을 합치기를 희망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들 두 회사는 소유권을 교환하는 것이 아니며 각각의 회사명을 유지할 것이므로 합병이 아님을 주장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하나의 항공사로서 운영하기를 원하고 있다.

USair사와 버진 애틀란틱과 미국의 파트너 델타 항공, TWA, 콘티넨탈과 같은 여타의 항공사들은 BA-아메리칸 합병이 성사된다면 이 두 항공사가 미국-영국간 교통의 60%를 제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다.

미 항공사들, 저가의 운송업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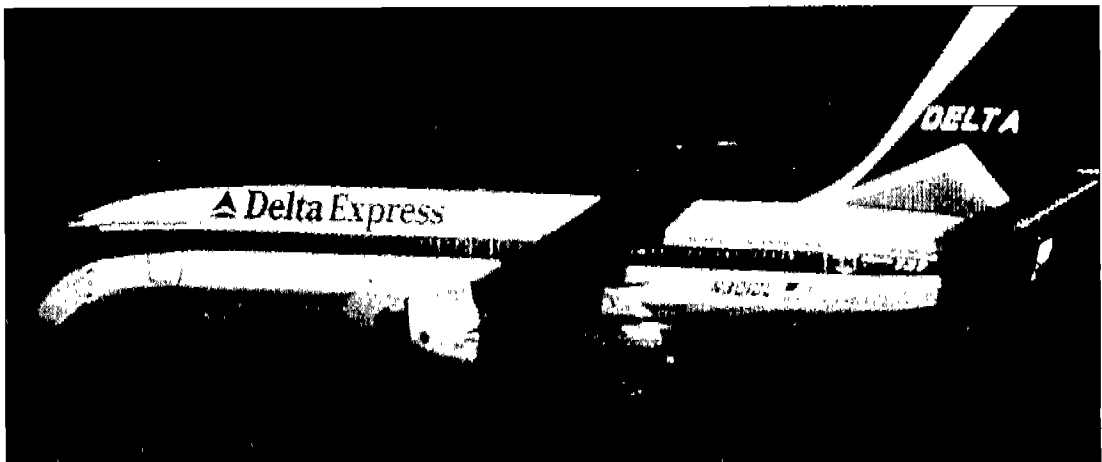
새로운 팬암 항공 (Pan American World Airways)은 9월 26일 운영을 시작했고, 델타 항공은 델타 익스프레스는 이름으로 새로운 저가 운항을 시작할 것이다. 경쟁사인 ValueJet 항공사는 미 운송국(Department of Transportation, DoT)으로부터 9월 30일 이후 항공업무를 다시 재개해도 된다는 허가를 받았다.

팬암항공은 세 대의 에어버스 A300B4를 이용해 뉴욕과 마이애미 그리고 로스앤젤레스 사이를 매일 운항하고 있다. 마이애미의 저가 항공노선에는 운항 횟수를 늘리고 일년 내에 비행기 아홉 대가 추가될 계획이다.

델타 운송사는 62대의 직행 비행기를 이용해 올란드와 북동부

지역의 8개 도시 그리고 중서부 지방과 플로리다 네 개의 지역을 매일 운항할 계획이다. 이 계획에는 보잉 737-200기가 투입될 것이다. 또한 델타 항공사는 '97년 1월 1일에 북동부지역과 중서부지역의 열 개의 도시와 플로리다의 다섯 곳의 지역을 매일 128대의 비행기로 운항할 계획이다.

ValueJet 항공사는 매일 32회 출항을 계획중이다. 애틀란타, 조지아의 저가 노선은 애틀란타와 플로리다 지역과 Washington Dulles를 MD사의 DC-9-30기를 이용해 연결할 계획이다. 또한 10월 24일에는 애틀란타와 12개 도시를 연결하는 비행기가 매일 102회 출발하게 될 것이라고 회사의 관계자는 말했다.



1월까지 델타 익스프레스는 25대의 737-200기를 확보할 예정이다